Entertainment p/17

여진구 "20대 역할 호기심"

Sports p/20

최나연 LPGA 개막전 우승

崔소위가 살렸다

너도나도 피하는데 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습 재벌 문제없나 ◆ 병역 - SK그룹 관련기사 p/9

영화 '순수의 시대' 세 남자 홀린 악인나

최민정 소위

항진하는 214급 잠수함 해군이 제9잠수함전단을 확대 개편해 수중 전력을 총지휘하는 잠수함사령부를 1일 창설했다. 초대 잠수함사령관으로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준비단장 윤정상 소장이 내정됐다. 사진은 항진 중인 214급 잠수함 모습. /연합뉴스

세계 6번째 작전권 갖춘 잠수함사령부 창설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1일 국가전략무기인 잠수함의 작전·교육훈련·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됐다고 밝혔다. 잠수함사령부의 창설은 1992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 지 23년 만이다. 현재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일본·프랑스·영국·인도 등이다.

잠수함사령부는 준장급이 지휘하는 제9잠수함전단을 모체로 경남 진해에서 창설됐다. 이 부대는 수상 전력(함정) 위주인 1·2·3함대사령부와 동급으로 해군 소장이 지휘한다. 초대 잠수함사령관은 윤정상 소장(해사 38기)으로 제62잠수함전대장·합동참모본부 해상전력과장·제9잠수함전단장·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이전에는 제9잠수함전단장이 잠수함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담당하고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잠수함 작전을 지휘했지만 앞으로는 해작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잠수함사령관이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잠수함 작전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잠수함 역사상 유례가 없는 23년째 무사고 작전 운용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 기록은 지구를 91바퀴(364만8440km) 항해한 거리와 같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은 2일 오후 진해 군항에서 열린다. /윤용민기자 yoong@

성추행하면 강제전역

군, '원아웃 제도' 적용

이제 군대에서 성추행 이상의 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퇴출된다.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며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파면 등이 있다.

또 육군은 성관련 잘못된 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중순 같은 부대 육군 현역 소령과 여단장(대령)이 각각 부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군이 대책 수립에 나선 결과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취지자체는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라며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모니터링과 협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제1야당의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세간의 이목은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더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이 거론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레임덕은 여권 내부에서 온다'는 통설을 입증하듯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대결구도다. 1년에 불과한 임기지만 2016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다음 정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다. 2일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인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새누리 158인의 선택은

대통령 레임덕 위기… 오늘 '친박 vs 비박' 원내대표 경선

경선을 하루 앞둔 1일 원내대표 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선택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비박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과 정부와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당·정·청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즉각 총선을 향한 민심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자리에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청와대에 포문을 연 바 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는 성공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 냉정한 평가"라며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2년간의 거듭된 실정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박 대통령과 공멸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인식이다.

친박인 이 의원은 그동안의 모호한 돈에서 벗어나 유 의원과 대립각을 분명히 하며 '당·청 공동운명체'론을 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서 당 지지율 40%,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유지되도록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쓴소리만 하다가는 예전 열린우리당처럼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유 의원의 "청와대 얼라"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하면 본인 속은 시원하겠지만 실제로 이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뒤틀리면 협조가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와 내각은 휴일임에도 긴급 회동회의를 열어 연말정산·건강보험료 정책 등 최근의 정책혼선에 사과했다. 또 내각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과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이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2일로 앞당겼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등 세 겸임장관은 경선 투표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행보로 인해 박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이른바 '박심논란'이 일고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울먹이는 야당 당대표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오른쪽부터) 이인영 박지원 당대표 후보가 1일 수원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합창단의 '잊지 않을게' 노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부총리 '정책혼선' 사과

여당 경선 코앞에서 '당정청 공조' 강조

국무총리 교체기에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가 1일 정부의 거듭된 정책혼선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두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소집된 '정책조정강화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사과하며 최근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에 힘썼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정부가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사회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이 있어서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하지는 않았다. /송병형기자

이명박 정부의 롯데 프렌들리 의혹 검증대 오르나

3일 출간 'MB의 비용' 이명박정부 기업비리 정조준

제2롯데월드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이명박정부의 '롯데 프렌들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조짐이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출간이 계기가 됐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기업-정부-학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과의 토론 내용을 엮어 오는 3일 'MB의 비용'이란 제목으로 출간한다. '대통령의 시간'에 맞불을 놓는 성격이다.

이 책에는 최근 제2롯데월드 논란의 기원이 이명박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롯데그룹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이 전 대통령은 인시헌리로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지난해 11월 18일 좋은나라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제2롯데월드의) 그 높이를 허가해주려면 성남 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원래 7° 틀어야 했다. 그런데 3°만 틀어도 되게 해줬다"며 "이 전 대통령은 결코 승인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앉혀서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를 틀면 (롯데가 부담할 활주로 공사비용이) 1조2000억원이 들고 3°를 틀면 3000억원이 든다"며 "이것만으로 롯데에 9000억원의 이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안보상으로 심각한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MB의 비용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롯데·KT·포스코 등 이명박정부 시절의 기업 비리와 특혜 문제를 구체적인 손실비용으로 추산한 결과가 담겨 있다.

유종일 좋은나라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며 "한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봄소식 전하는 홍매화 '활짝' 입춘을 사흘 앞둔 1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홍매화를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IS 참수 충격…"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로 정부의 테러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1차장(해외파트)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 전 1차장은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신감청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감청을 제한하고 있다.

염 전 1차장은 "IS·알카에다·폭탄·전시 이런 키워드들이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그걸로 통신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통신 관찰을 해야 테러리스트 의심자를 가려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영장 없이 무한정 통신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얼마전 중앙정보부(CIA)의 고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일축했다"며 "이는 미국 국민의 60%가 알카에다 등 테러리스트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콘센서스(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9번째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법안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로 번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염 전 1차장은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따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가 가능할 만큼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안기관에게 통신감청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보안기관에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든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든 테러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용수기자 young18

서점에 나온 MB 회고록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남북관계, 자원외교,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 등과 관련한 비사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MB회고록 후폭풍 속 2월 국회 개막

여 원내대표·야 당대표 선거, 정국 분수령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 열린다. 2월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파문으로 자원외교 국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격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과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레임덕 위기에 놓인 현 정부에 대한 여야의 대응노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일과 4일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9일과 10일에는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2월국회에서는 기관보고 청취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2월국회에 앞서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이를 두고 여야 간 대립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도 있다.

여야는 민생대결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의료산업 육성법 등 연말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다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당청 관계는 물론이고 여당과의 관계 혁신을 외치는 유승민 의원과 청와대와의 공동운명체론을 주장하는 이주영 의원이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들도 대여 강경투쟁을 선포한 문재인·이인영 의원이 있는가하면 타협을 주장하는 박지원 의원이 맞서고 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2월국회는 물론이고 향후 정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발목 잡힌 '통일대박론'

MB회고록에 美언론까지 찬물 세례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통일대박론이 최근 들어 안팎으로 찬물 세례를 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균열 조짐(some friction)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소니 해킹을 이유로 북한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양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동상이몽(same bed different dream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한미 간 대북공조 빛샐 틈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WP는 이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완벽히 협조한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노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통일대박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국내에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기간 물밑에서 진행된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내정의 실패로 추락한 지지율을 남북관계 진전 등을 통해 만회해야 할 청와대로서는 거듭된 악재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탐윤여기자

중국 '출산 유격대' 아시나요?

metro HongKong

산아제한에도 자녀 11명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국에서 자녀를 11명이나 낳은 가정이 있어 화제다.

30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사천성 쑤이닝시에 살고 있는 허홍은 아내 장심쯔와 1995년 결혼한 이래 현재까지 11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 가족에 '출산 유격대'란 별명이 붙은 가운데 결국 지난 당국는 2012년 7월 아내에게 자궁내 피임기구를 장착하게 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많이 낳게 된 사연이 있다. 허홍의 신조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돈을 남기는 것보다 낫다'이다. 그는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잘 되면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이 낳을수록 희망이 커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다르다. 그녀는 "일부러 많이 낳은 것이 아니다. 피임을 할 줄 몰랐고 낙태를 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부부는 보건부 직원에 이끌려 수술실에도 몇 차례 갔지만 매번 도망쳤다. 또 아내가 타지 사람이어서 수술도 더 어려웠다.

한편 가족은 초과 출산 벌금도 내지 않고, 막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적에 올려 이웃들의 의구심과 불만을 사고 있다. 허홍은 "모두가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도 없다. 다산에 대한 산조가 옳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사천성 당국은 "몇 해 전 아들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정을 딱히 여겨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리=정문 특기자

백신으로도 못 막은 독감…홍콩서 81명 사망

백신으로도 예방하기 힘든 독감이 홍콩에서 발생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월 한달 간 어린이를 포함해 143명이 독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이중 성인 81명이 사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149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변종 H3N2 바이러스로 알려진 이번 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WHO는 변종 H3N2 바이러스를 올해 유행 가능 바이러스에서 제외시켜 기존에 배포된 백신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어렵다. 변종 H3N2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4월 이후에나 배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유정기자

8일만에 또 1일 일본 도쿄 거리에서 시민들이 호외로 발행된 '고토사 살해 영상' 제목의 신문 1면 머리기사를 읽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아베 외교력 '흔들흔들'

일본인 인질 결국 참수…미국선 역사왜곡 비난 거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력에 연일 커다란 생채기가 나고 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외교적 성과로 덮으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참사 공개로 자위대 영역확대 시도

일본 정부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슬람국가(I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고토 겐지의 참수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유카와 하루나의 참수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최악의 결과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베 총리는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기력한 협상력을 드러낸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질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 채널 등을 동원, 15번 IS 그룹이 문제시한 일본의 2억 달러 중동 지원은 군사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이라고 호소해 왔다. 또 고토 씨 석방을 위해 여성 테러리스트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요르단 정부와 터키 등 관계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 노력 등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꾀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교과서 왜곡 시도 역풍 거세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은 미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일으킬 조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출판사들을 상대로 조직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는 "명백히 교과서 저자들의 저술과 연구, 표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역사를 바르게 알리려는 한국을 저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시도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역사학자들도 나섰다.

제프 킹스턴 미국 템플대 교수는 "아베 총리의 교과서 왜곡 시도는 민망한 외교적 실수"라며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히 얼마나 동원되는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꼴사납다"고 비난했다.

인질 참수를 파악못한 아베 신조 총리가 1일 굳은 얼굴로 머리 숙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잘 나간다던' 미국 경제마저…

저성장 늪 9년째 탈출 실패

미국경제마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 홀로 성장'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9년째 이어지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발표된 미국의 201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간 환산 기준 2.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3.0~3.2% 성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던 비로 전분기 성장률(5.0%)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극히 저조한 4분기 성장률 때문에 2014년 전체 경제성장률도 고작 2.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9년 연속 3% 미만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부터 시작된 경제성장률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저성장이다.

◆금리인상 시기 늦출 수도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주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옛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이전 분기의 3.2%보다 높아진 4.3%를 기록할 정도로 호전됐다. 하지만 기업 투자 증가율이 전분기의 8.9%보다 크게 낮아진 1.9%에 그쳤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저유가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미국 1분기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당초 계획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국명기자

신한은행장 공백 두 달…1위 '빨간불'

서 행장, 정상 업무 복귀 사실상 불가능
임 대행, 주총 전까지 조직장악 쉽지않아

서진원(사진 오른쪽) 신한은행장이 백혈병(혈액암)으로 사실상 업무복귀가 어렵게 됐다. 당분간은 임영진(왼쪽) 부행장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 중순까지 행장이 없는 상황이 지속돼 장기적으로 핵심사업 강화를 통한 리딩뱅크 지위 유지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부행장을 서 행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행장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 행장은 지난달 2일 출근해 시무식 이후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이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아 5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9~10일 그룹 경영포럼, 12~13일 일본 재일교포 주주 신년하례회 등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서 행장은 당초보다 건강이 회복돼 이주 내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분간은 통원치료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임영진 대행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문제는 임영진 대행체제가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부행장이 총괄업무는 이임받았지만 서 행장도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여전히 자기 후계자로 낙점한 서 행장을 신임하고 있는 것도 임 대행의 업무 수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임 대행을 선임한 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 행장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이자 후배로 20년 이상 계속 다니고 나이 먹고 보면 아플 수 있다"며 "(차기 행장 선임에 대해서)오는 3월 중하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결정하겠지만 서 행장의 회복상태 등을 보면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서 행장에게 신뢰를 재차 확인했다.

서 행장의 그간 행적도 임 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서 행장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이후인 2012년 행장에 선임돼 조직의 안정화와 리딩뱅크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을 통한 '창조금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반면 임 대행은 지난 1986년 신한은행 입행 이후 해외 지점과 영업, 비서실장 등 내부직만 역임하는 등 외부적 성과와 대내외 네트워크에서는 두각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 행장은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차기 행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그간의 업적이 있는 만큼 한 회장이 임 대행을 새 행장으로 선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 대행이 3월 주총 전까지 경영 총괄을 맡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짧은 만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B와 하나금융이 공격적으로 리딩뱅크 지위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의 공백은 적은 기간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metroseoul.co.kr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49.26	591.58	2.00	1095.30
(-1.79)	(-1.54)	(변동없음)	(+0.80)

신성장사업 금융지원 발표

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유도를 위한 30조원 상당의 투자 촉진 프로젝트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30조원 상당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서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방식은 기업투자 금액에 산업은행이 1:1로 매칭해 자금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이 사업에 15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 30조원 상당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주식과 상환전환우선주 등 주식관련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자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이나 회사채 인수 방식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 모두며 지원분야는 신성장산업과 전통 주력산업, SOC 인프라 투자다.

신성장산업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물류·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산업과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이 포함됐다. 주력산업은 반도체·자동차·조선·기계·철강·섬유·화학 등이다. 대형 투자프로젝트는 SOC, 플랜트 건설,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뜻한다.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인수합병(M&A)·분사 시 소요자금 등도 지원 대상이다. 건설·업체별 한도 제한은 없다.

산업은행은 오는 2일부터 개별 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검토한 후 액정을 재결할 예정이다.

현재 투자촉진프로그램 1차 심사대상에는 효성, 금호산업 등 5조원가량이 대기 중이다.

효성은 첨단경신소재인 폴리케톤 개발을 위한 1조원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7000억원 상당 민자 고속도로(아산-오산) 건설사업 지원을 준비중이다.

/김형석기자

저소득층 배식봉사 푸르덴셜생명 실시

푸르덴셜생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에서 탈북 주민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께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손병옥 사장, 김윤태 부사장, 최주영 총괄본부장 등 임원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150여 명의 어르신께 배식봉사를 하고 50여 저소득 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했다.

이어 푸르덴셜생명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임원과 팀장급은 연간 12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개인휴가 일수 외 하루의 휴가를 더 부여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휴가제도(Personal Volunteer Day)도 도입했다.

또한 어린이 경제교실, 난치병 어린이 소원 들기를 위한 메이크어위시 등 현재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마일리지 시스템을 개선해 임직원 개개인이 본인의 봉사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손병옥 사장은 "이번 활동은 임원진이 마중물이 돼 전 임직원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윤종규 KB은행장 부산·대구 방문 '현장경영' 강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이 고객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윤종규 은행장이 직접 부산과 대구를 방문했다. 이날 대구지역 직원들과의 자리에서 윤종규 행장이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농협금융, 4개 계열사 사장단 인사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 농협캐피탈과 농협선물의 새 수장이 결정됐다.

1일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열고 임기가 만료되는 4개 자회사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대표들 교체해 경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마련됐으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더십과 경영능력, 계열사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농협생명에는 김용복 전(前)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이 선임됐다.

김 사장은 농협은행에서 영업 여신심사 등에 업무경험을 갖춘 인물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으로서 보험 전문성을 갖고 있다.

농협금융 측은 "생명보험사 4위의 영업력을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 신계약확보와 자산운용 능력제고 등 보다 수익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캐피탈에는 이신형 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내정됐으며 김 전 농협중앙회 인천지역 본부장은 농협선물 차기 후보자로 선임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캐피탈의 경우 농협은행과의 연계영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전문능력과 영업추진력을 갖춘 이 부행장이 선정됐다"며 "농협선물은 향후 NH투자증권의 자회사인 우리선물과의 통합에 대비해 오랜 동안 농협중앙회 등에서 근무하면서 통합업무에 적합한 추진력과 리더쉽을 갖춘 김 전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을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학현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손해보험사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양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임키로 했다.

한편 후보자들은 각 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된 후 부임할 예정이다. /박아란기자 arfro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5년 5월 31일 정간물등록번호 서울바00011 가00376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인하 효과 있나

임대·임차·중개인 등 3자가 난처한 상황 잦아

주거용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이달 초 인하됐다.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중개보수는 특히 임대차 계약이 많은 오피스텔 수요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중개보수 인하 이후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까지 세 명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엌과 목욕시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곳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했다. 지난 6일 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을 0.9% 이하에서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 등으로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취지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주택과 같은 중개보수를 책정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판단에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찾는 수요자는 직장 초년생을 포함한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고 매매보다는 월세 위주의 임대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피스텔 거래를 중개 보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사무실(업무용)로 신고할 경우 부가세 환급, 전기 수도 등의 공과금과 비과세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물건은 일반 업무용 사무실로 등록이 돼 있고 앞으로 나올 물량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신고할 집주인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에 있어 기형적인 모습을 양산할 수 있다"며 "서류상 사무실인 채 임대를 놓지만 실제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사무실도 주택도 아닌 오피스텔 만의 특징이 있어 그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폭이 넓은 편인데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 0.9%이하면 보통 0.6%를 받고 전용 85㎡ 이하에서는 0.4% 받는다"며 "주택임대나 일반임대나의 등록 문제는 상권에 따라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건이 대부분"이라며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집주인과 얽의 볼 게 많은데 중개보수까지 줘고 요율던 0.4%에 계약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난처한 심경을 토로했다.

마경헌 세무사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많다"며 "임대인 입장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 이전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물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인정, 주택임대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주거용 임지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 세무사는 이어 "하지만 다양한 혜택의 배경은 결국 임대료를 많이 받지 말라는 것인데, 실제 시장 움직임은 그렇지 않다"며 "문제는 신규 등록자보다 기존에 일반임대로 등록했던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할 경우"라며 "오피스텔 이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김학철기자 kimc1104@metroseoul.co.kr

금감원 Q&A

대출 보증금 요구, 사기인가요?

Q. OO캐피탈사 직원을 통해 대출신청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미 송금은 했는데 사기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A. 이런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 대출신청 고객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가 공탁금이나 보증금, 예치금 등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을 삭제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대출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범의 연락처와 송금 계좌 등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사의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김형준기자

호반건설 '아기 속싸개 만들기' 봉사활동 호반건설 대표 전중규(은 자서 사내 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가 서울 서초구청 강당에서 저개발국가 신생아들을 위한 '아기속싸개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호반건설 임직원 100여 명은 서초구자원봉사센터 'Mom김이야' 프로그램에 참여해 50여 개의 아기 속싸개를 만들었다. 이날 제작된 속싸개는 저개발 국가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호반건설 사내 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가 '아기속싸개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반건설 제공

DGB생명, 공식 출범… 지역 기반 통한 수익성 개선 주력

우리아비바생명이 DGB생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DGB생명은 그룹의 은행 채널을 활용해 방카슈랑스 등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영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DG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DGB생명 서울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CI와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29일 선임된 오익환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DGB생명은 앞으로 수익 중심의 중장기 내실성장 추진,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그룹 시너지를 통한 그룹 고유의 조직문화 구축을 경영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우선 전략 지역 확보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스마트 경영관리를 통한 지속 성장 추구의 3가지 중점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DGB생명은 DGB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대구·경북을 중심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영업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카슈랑스 비중을 25%까지 올리고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한 특화된 영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점포도 오는 2019년까지 총 25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재무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DGB생명은 올해 1차 목표로 보험사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현재 170%에서 20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6억 원 안팎인 월 초회보험료도 오는 2019년까지 19억5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0%로 높이기로 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DGB생명 서울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CI와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인규(왼쪽 열곱 번째) DGB금융그룹 회장과 오익환(왼쪽 여덟 번째) DGB생명 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DGB금융그룹 제공

오익환 DGB생명 사장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실경영으로 2019년 생명보험사 톱10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편입 조기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룹 시너지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은 지난해 11월 NH농협금융과 우리아비바생명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다. /김학철기자

증권업계도 핀테크… 은산분리 완화 분수령 될까

'부실전이 위험' vs '미룰 수 없는 과제' 팽팽히 맞서

금융과 IT의 경계를 허무는 핀테크 열풍이 증권업계에도 불어닥쳤다. 국내 핀테크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온라인 특화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근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 핀테크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온라인 증권사의 강점을 살려 탄탄하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6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핀테크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에게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은행 거래를 가능케함으로써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

국내 저축은행 1위인 SBI저축은행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100%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이 가시화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키움증권의 대주주는 산업자본인 다우기술이므로 종전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인터넷은행 설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업계의 요구를 의식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는 과거 2002년 벤처열풍과 2008년 규제 완화 붐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으나 그때마다 은산분리(금산분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금융위 측은 해외 핀테크 시장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인터넷은행이 국내에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뿌리 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서도 한 목소리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핀테크 세미나에서 "내려갈 대로 내려간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면 새 결제시스템을 들여와도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면서도 "현행 은행법 아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핀테크 도입으로 인한 신 수익원 창출 효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최소한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은행과 온라인 브로커리지 등 핀테크 사업이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전한 것이다.

삼성증권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안착을 위해선 금산분리 원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정은 고수하는 한 재벌그룹은 물론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산업자본인 다우기술이 대주주인 키움증권 등도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엄격하게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만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법도) 지극히 근시안적 접근이고 국내 산업자본은 역사별은 자칫 금융은 물론 ICT 분야까지 해외 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반면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인터넷은행 설립 시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원칙론 측에서는 IT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과 같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기업의 부실이 전이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한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영역에 이미 진출한 삼성그룹이 은행업종까지 노린다는 시각도 제기한다.

미국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비금융기업들이 특정 인가를 받으면 인터넷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BMW,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대기업들은 산업은행 인가를 받아 금융계열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계열사를 둔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모기업의 주력 사업과 은행 상품을 연계한 서비스를 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6월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으로 법을 개정 사항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핀테크 업체들은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다기보다는 기존 금융권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서비스, 개개인에 적화된 방법을 제공할 뿐"이라며 국내 금융권이 수수료에 집착하다간 또 다시 해외 업체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kim@metroseoul.co.kr

대우증권 연내 매각 추진

최대 2조원 전망… 하반기 작업 본격화 할 듯

올해 하반기 KDB대우증권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업무계획에서 올해 안에 대우증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연내 KDB대우증권 매각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을 만나 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제외한 KDB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 매각을 협의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매각 일정이나 패키지매각 등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고, 좀 더 검토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우증권 최대주주(43%)인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기자간담회에서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각 대상은 대우증권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보통주 43%(약 1억4048만주)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1만100원)를 적용하면 1조 4100억원이 넘는다. 증권업계에선 대우증권의 위상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유력한 인수 후보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에 거론되고 있다. 우선 신한금융지주가 대우증권을 인수한다면 국내 최대 증권사로 오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대우증권의 자산은 28조4000억원, 신한금융투자 27조2800억원이다. 국내 자산규모 1위 증권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통합법인 NH투자증권으로 합병자산 42조6021억원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홍 회장은 "KDB대우증권 매각을 다른 금융계열사와 묶어 파는 '패키지 매각'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

수협은행, 소외계층위한 고금리 적금 출시 수협은행은 소외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연 7%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Sh행복한미래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입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년소녀 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매달 1만원부터 20만원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결혼이나 출산, 주택임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현재 연 3.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제공

중소증권사, '구조조정 쓰나미'

하이·IBK·LIG 등 주식 거래대금 위축에 직격탄

여의도의 구조조정 바람이 올 들어 중소형 증권사로까지 확산됐다.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대형 증권사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올해 하이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이 잇따라 인력감축에 나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전체 961명의 임직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250명을 희망퇴직시킬 예정이다.

또 영업지점 총 49곳 중 20점을 통폐합해 사실상 전체 규모의 41%를 축소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전신인 CJ투자증권 시절을 포함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낸 모기업 현대중공업의 경영 악화도 이번 구조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IBK투자증권에서도 30명의 직원이 일터를 떠났다. 지난 2년간 70여명의 직원 수를 줄이고 10개 지점을 폐쇄한 LIG투자증권도 올해 10명의 직원을 추가로 떠나보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인력 조정을 단행한 증권업계는 연초에도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이 쪼그라들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 침체로 연해 증권결제대금은 5299조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이 중에서 주식결제대금은 273조원으로 1년새 3.5% 줄어들었고 장내 주식시장의 결제대금은 108조원으로 4.4% 감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2007~2008년과 2010년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직원수를 늘렸으나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거래대금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주식 중개거래가 주요 수입원인 중소형 증권사들은 거래대금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모작기자 ourlive@

해군 소위된 SK회장 딸 최민정

"노블레스 오블리주 본받아야"

최근 재벌가의 병역면탈 행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둘째 딸 민정(24)씨 사례가 세상 귀감이 되고 있다.

민정씨는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9월 117기 해군사관후보생(학사장교)으로 입교해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11월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재벌가 딸에서 대한민국 해군 '최민정 소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민정씨는 가장 힘들다는 함정승선도 자원했다고 한다. 그녀의 어런 선택은 명품(?)이나 석불사진 등을 물려받아 꿈니게 사는 게 통례인 재벌가 딸 문화에 견줘 매우 이례적이다.

이타 재벌가 아들들과 비교하면 더욱 파격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허리디스크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과체중으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당남겐제라는 희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민정씨의 아버지 최태원 회장 역시 과체중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보여준 민정씨는 대학시절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생활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가의 자제, 게다가 병역의 무도 없는 여자가 군 입대를 한 것은 이타 재벌가 아들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크게

최민정 소위. 뉴시스

대조적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유럽 상류층의 권위와 특권은 정당화게은 정신적 뿌리다. 귀족으로 대접 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의 자녀 교육은 다른 기업 보다 혹독하다는 평이다. 최 회장의 2녀 1남 자녀들은 아직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학업중이거나 외부에서 사회경험을 쌓고 있다.

큰딸 윤정 씨(25)는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 진학, 경영대학원(MBA) 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아트센터 나비와 SK그룹의 '행복나눔재단' 일을 돕고 있다.

둘째인 민정 씨는 군에 자원입대하면서 SK는 물론 재벌가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적잖이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민정씨는 면접시험 때 "남극을 탐험한 섀클턴의 도전 정신과 좌초 위기를 돌파한 리더십에 감동을 받아 해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섀클턴은 항해사 출신으로 1914년 대원 27명과 함께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 횡단에 도전했다. 빽가 떠다니는 빙산에 갇혀 630일이 넘게 고립됐으나 섀클턴의 리더십과 집념으로 대원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

민정씨는 섀클턴의 리더십을 본받아 자신 역시 그러한 통솔력과 집념을 갖추고자 해군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 조건이 불리한 여자로서 고된 훈련과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뚜렷하지 않고서 견디기 힘들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정씨는 내달 13일까지 초급장교 교육을, 4월 3일까지 보직 교육을 받은 뒤 같은달 6일 충무공 이순신함에 배치될 예정이다.

민정씨가 맡게 될 직은 전투정보보좌관으로 작전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해군사관 후보생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 6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해군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사관후보생 117기 동기생 대표 등이 입회한 가운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보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인 최신원 SKC 회장 부자도 해병대를 제대한 선후배 사이다. 최신원 SKC 회장은 동생의 빈자리를 대신해 지난 민정 씨의 임관식에도 참석, 군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조카의 임관을 축하했다.

최신원 SKC 회장의 외아들 성환 씨도 2006년 중국 푸단대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했다.

/류순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LG 매직스페이스 확대

LG전자가 음에에너자효율성을 높이고 수납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냉장고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 '더블 매직스페이스'(사진) 라인업을 보강했다고 1일 밝혔다. '냉장고 속 미니 냉장고'로 불리는 신개념 수납공간 매직스페이스를 상단 냉장실 도어 양쪽에 갖춘 신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매직스페이스란 냉장고 문을 다 열지 않고도 자주 찾는 간식·음료 등을 편리하게 꺼낼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냉기손실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패밀리 스페이스는 오른쪽에, 주부들이 많이 쓰는 반찬과 조미료, 자주 먹는 과일 등을 보관하는 시크릿 스페이스는 왼쪽에 뒀다.

새로운 디자인도 적용했다. 용량 950ℓ로 곡면 글라스를 쓴 제품(F957TS55)과 870ℓ 용량에 각각 곡면 글라스(F877TS55)와 메탈 소재(F877DN55)를 적용한 제품 2종 등 모두 3종이다.

/정은성기자

'G플렉스2' 발열문제 있나?

일각선 40도 넘어 저온화상 우려 목소리

LG전자 'G플렉스2'가 발열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G전자와 퀄컴코리아는 지난달 30일 G플렉스2 국내 출시에 앞서 이 상품에 탑재된 칩세트인 스냅드래곤 810에 발열 문제가 없다고 이례적으로 해명해 주목 받았다.

하지만 LG전자 G플렉스2 사용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LG G플렉스2 사용자모임' 커뮤니티에 제품 테스트 결과 40도를 넘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물론 제품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카메라, 데이터 처리속도 등 대부분 성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해당 글 게시자는 "30여분간 게임을 실행했는데 스마트폰 온도가 40.7도까지 상승했다"며 "실제로 화면에 손을 대 보면 뜨끈뜨끈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1인 서울 한 피부과 전문의는 "40~44도의 온도는 의학적으로 저온화상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저온화상이란 40~44도 이상의 발열체를 일정 시간 이상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 단백질이 손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평균 40도 이상의 발열을 하는 스마트폰 사용에도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코엑스몰 존 매장에서 한 모델이 LG G플렉스2 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가 G플렉스2를 통신 3사를 통해 출시한지 불과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발열 문제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LG전자 G플렉스2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한 국내 첫 스마트폰이라는 점에서 발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시의 실적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한편 LG G플렉스2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여러 외신을 통해 불거졌다. 발열 문제로 칩 출시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LG전자 G4 출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일부 외신은 퀄컴이 최근 스냅드래곤 810의 발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채상원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아프리카 TV시장 공략 박차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아프리카 TV시장의 성장에 따라 삼성전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사회통합 주거단지 '벨리칸 파크'에 28개의 주택을 건립해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28채의 주택은 '넬슨 만델라의 날(7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어졌다. 삼성전자, 케이프타운시, 해비타트가 함께 힘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캠페인의 가장 큰 후원사로 지난 4개월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신흥시장의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해비타트와 협력해서 전기가 없어 IT교육이 불가능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라팔레서 초등학교에 태양광인터넷스쿨(SPIS)을 전달하는 등 남아공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잠비아의 베트남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지난해 '넬슨 만델라의 날' 삼성전자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 임직원들이 벨리칸 파크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 1분기 반도체 장밋빛

반도체 사업부 구원투수역 '톡톡'…'갤S6' 최대변수

지난해 삼성전자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낸 반도체 사업부가 올해 1분기에도 장밋빛 전망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IT모바일(IM) 부문의 부진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부문의 약진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함하는 DS(반도체 등 부품)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이 3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DS 사업부가 전사 영업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6%까지 뛰어올랐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보다 업황이 좋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에 투자를 늘리며 두각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세철 NH투자증권은 연구원은 1일 "올해 스마트폰 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모바일 DRAM, NAND 등 컴퓨팅 관련 반도체 부품 공급처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삼성전자는 이 모두를 보유한 전세계 유일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말했다.

황준호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2013년 전체 영업이익의 72%를 기여했던 세트(IM+CE) 부문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올해에는 43%까지 하락할 전망"이라며 "반면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보유한 DS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올해 57%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삼성전자의 올해 시설투자 계획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14조3000억원, 디스플레이 4조원 등 시설투자에 총 23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다.

반면 IM 부문의 성장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분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S6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준기자 yoo@

"잘못된 문화 개선하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총체적 문제 의식한 발언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인 문제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경기도 용인시 신갈 연수원에서 '수익력 강화를 통한 흑자 달성 및 성장 기반 강화' 등 주제로 임원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31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국내외 전 임원 1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회사가 어려울수록 나를 비롯한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직원들과의 유연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잘못된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에 앞서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발 더 앞서 변화하고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문제이자 대한항공의 문제로 지적되는 소통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발로 뛰는 현장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고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며 "직접 현장에서 찾아 어려운 시장도 정주하는 판

면, 고객서비스와 안전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비스란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중요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융통성도 필요하다"며 "일관성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단순히 지시로만 끝나지 말고,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어디까지 유연성을 발휘해도 되는지를 직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의 성과는 우리가 잘한 부분보다는 유가 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항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저비용 항공사도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 없으며, 시장을 지키고 선도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어떤 어려움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산업의 특징상 높은 원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현

우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달라"며 "자신감과 근성을 가지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매년 초 국내외 모든 임원이 참석하는 임원 세미나를 통해 그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2015년 사업계획 논의에서부터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방안 마에스트로 리더십,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맞춘 신기술, 미래산업 발전과 대응 방안 등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형달기자 ezman@metroseoul.co.kr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커버리지 전국 85개시로 확대한 가운데 울릉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3밴드 LTE-A 기지국 2만6천개 구축"

SK텔레콤, 85개시 확대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밴드 LTE-A 서비스 범위를 전국 85개 시내 주요지역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85개시의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3밴드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구역은 주요 대도시 이외에 KTX 경부선 구간, 울릉도·한라산 백록담·제주 마라도 등의 관광지, 홍천 대명리조트·춘천 엘리시안 강촌·원주 오크밸리·횡성 웰리힐리·정선 하이원리조트 등 강원도 주요 스키장 이 포함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해 1분기까지 전국 도심지와 전국 지하철 전 구간 등에 총 2만6000식의 기지국을 설치해 국내에서 가장 넓고 촘촘한 3밴드 LTE-A 서비스 지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윤기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 연임할 듯

서울상공회의소는 이달 24일 정기 의원총회를 열어 임기 3년의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는다.

두산그룹 총수인 박용만(사진) 현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이 이번 총회에서 다시 선출돼 연임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전임 손경식 회장(CJ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2013년 8월부터 잔여 임기를 채웠다.

박 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회장직을) 1년8개월 수행했는데 제가 한 번 더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해 연임 의향을 표

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해외출장 50회, 비행거리 27만9000㎞를 기록하며 경제 순방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을 듣는다.

대한상의 측은 "박 회장이 21대 회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새롭게 22대 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연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서울상의 총회 한 달 후인 3월 25일 의원 총회를 열어 전국 상의 회장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밟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경련 부회장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주요 그룹 총수의 대표성을 고려해 부회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달기자

• 90수 기념 •
송해 빅쇼
시즌3. 영원한 유랑청춘
90세 송해
최장수 무대공연
기네스북 새기록
등재에 도전
2월19일
설날/오후3시, 6시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주최 요요기획, C-mind
·주관 I&W Ent
문의/예매 인터파크 1800-2575

삼성 '갤S6'로 애플 추격 따돌릴까

내달 선보이는 '비밀병기' 스마트폰 관심

삼성전자의 올해 첫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가 한 달 뒤 베일을 벗는다. 세계 스마트폰 1위 업체의 대표 모델인 만큼 국내외 IT(정보기술) 매체들도 앞다퉈 갤럭시S6의 디자인과 사양을 놓고 여러 추측을 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한다.

특히 작년 4분기 아이폰6를 앞세워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년 만에 삼성을 따라잡은 애플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비밀병기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6는 옆면의 소재가 기존의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금속)이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메탈 스마트폰은 세련미는 물론 잡는 느낌(그립감)까지 탁월해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바디 소재로 사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삼성은 최근 내놓은 대부분 중저가 스마트폰의 측면 혹은 몸체 전체에 메탈소재를 채용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메탈 소재 스마트폰 판매를 늘려왔다"면서 "갤럭시 S6에 적용될 메탈 소재 양산에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충분한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이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갤럭시S6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갤럭시S6와 더불어 S6에 엣지 화면을 입힌 한정판 '갤럭시S 엣지'라는 모델도 따로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삼성은 갤럭시노트4의 파생 모델로 한정판 '갤럭시노트 엣지'를 선보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갤럭시S 엣지에는 갤럭시노트 엣지와 달리 좌우에 엣지 화면을 적용한 '더블 엣지'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노트4' 역시 선전했으나 애플이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어 신제품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

지난 4분기의 판매량에 대한 평가는 시장조사업체마다 엇갈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처럼 애플이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스트래티지애널리스틱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애플은 지난 27일(태평양 표준시) 실적발표에서 이 회사 2015 회계연도 1분기(2014년 9월 28일~12월 27일)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450만대였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 창립 이래 최대 아이폰 판매량이다. 삼성전자는 29일(한국 시간)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에 휴대전화 9500만대를 출하했으며 이 중 스마트폰의 비중이 70%대 후반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약 7100만대~7500만대를 판매한 셈으로 애플에 뒤졌거나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2013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가 28.83%, 애플이 17.43%로 11.40%포인트로 크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20.01%, 애플은 19.85%로 집계됐다. 애플의 회계연도 1분기 아이폰 매출은 512억 달러(56조1000억원)였으며 이는 삼성전자 모든 사업 부문의 매출을 합한 것(52조7000억원)보다 크다. 애플은 아이폰만의 순이익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판매 비중이 약 70%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체 순이익의 70%인 120억 달러(13조1500억원)를 아이폰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조5600억원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S-LTE와 아이폰6 6플러스 /삼성전자·애플 제공

애플의 이같은 성과는 실질적으로 단일 모델이자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으로 거둔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급 시장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업체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제품 다변화와 높은 마케팅비 지출이 삼성전자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에 비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곧 출시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성공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출시했던 '갤럭시 S5'의 부진을 만회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양혜선기자 hyeso0404@metroseoul.co.kr

KT "기본 통화량으로 국제전화 이용"

KT는 국제전화 사용이 잦은 고객들을 위해 모바일 기본 음성통화량으로 국제전화를 국내전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부가서비스 '001 쉐어링(sharing)'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001 sharing' 서비스는 모바일 요금제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으로 국내전화뿐 아니라 국제전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 5000원의 모바일 부가서비스다. 예를 들어 순 모두다 올레 41' 고객이 '001 sharing'에 가입하면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250분)을 국내·외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제전화 통화량이 가장 많은 미국, 중국, 캐나다,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올레 LTE 요금제 26종, 3G 요금제 6종을 이용하고 있는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본 음성통화량보다 초과 사용하더라도 국내 통화 요금과 동일한 초당 1.8원이 과금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종철 KT UC사업담당 상무는 "'001 sharing' 서비스를 통해 이제 휴대전화에서도 부담 없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상 수시로 해외에 연락하는 비즈니스맨이나 해외에 가족과 친지를 둔 이용자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모델들이 KT 모바일요금제의 기본제공통화량으로 저렴하게 국제전화까지 가능한 '001 sharing'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KT 제공

LG유플러스 광기가인터넷 요금 내린다 LG유플러스는 100Mbps의 초고속인터넷보다 최대 10배 빠른 1Gbps 속도의 'U+광기가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넥스텝코리아, 부동산 사업 협력

LG유플러스는 부동산 전문 솔루션 업체인 넥스텝코리아와 스마트부동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기업 인터넷전화와 부동산 매물 솔루션을 연동해 업체간 매물 정보 교류 시 상대방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완료한 상황이다. 양사간 이번 MOU 체결로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SOHO고객담당(왼쪽)이 1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김규태 넥스텝코리아 대표이사(오른쪽)와 스마트부동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향후 부동산 업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용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부동산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 스마트폰을 통해 매물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모바일 기반의 광고형 플랫폼을 제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통신과 부동산 업계의 상호 발전된 사업 모델로 확장시켜나갈 방침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SOHO고객담당은 "양사간 이번 협약 체결로 LG유플러스가 제공할 부동산 맞춤 특화 패키지 상품을 통해 부동산 정보 활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향후 특화 업종과의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상생을 통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갑질' 롯데홈쇼핑 퇴출되나

최악 피하기 안간힘 불구 '보여주기식' 행태 지적… 여론도 비우호적

지난해 갑(甲)질로 논란을 빚은 롯데홈쇼핑이 올해 재승인 심사를 두고 생사의 기로에 섰다.

갑의 홈쇼핑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한 TV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재승인 불허 방침을 세우자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롯데홈쇼핑이 퇴출이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며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월 TV홈쇼핑 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한다.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 때부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거래·경영 투명성 점수가 50%를 밑돌 경우 재승인을 불허하는 이른바 '과락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재승인을 해줬지만 TV홈쇼핑업체들에 대한 '갑질' 지적이 커지며 되풀이져 좌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3일 대통령 보고에서 "TV홈쇼핑과 공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재승인을 할 때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TF를 운영할 방침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11월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버릇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는 등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언급한 바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판매촉진비용·가격할인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일방적인 방송 취소와 변경, 부당 판매수수료 수취,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구두 발주 등 '불공정 거래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구조적인 납품 관련 비리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TV홈쇼핑은 1995년 GS홈쇼핑과 삼구쇼핑(현 CJ오쇼핑)이 첫 전파를 내보낸 이후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해 영업권을 연장하고 있다.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지금까지 TV홈쇼핑이 승인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못한 일은 없지만,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비리 적발 이후 기류는 급변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사장이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롯데홈쇼핑은 '비리홈쇼핑'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조차 롯데홈쇼핑의 퇴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슈퍼갑으로 행세하며 납품비리를 저질러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처럼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퇴출까지 염두에 두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나서 롯데홈쇼핑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경영투명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근 사무국을 설치키로 했다. 연간 50억 규모의 사무국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사와 고객 불만을 투명하게 해결하는데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이 필사적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홈쇼핑 재승인을 앞두고 내·외적인 악재를 희석시키기 위한 생색내기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리홈쇼핑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한 그룹 차원의 속보이는 이미지 쇄신 작업"이라며 "납품비리로 얼룩진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심사에서 탈락시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사업자 승인 유효기간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올해 5월27일까지, NS홈쇼핑은 6월3일까지다. 홈앤쇼핑은 내년 6월 23일, GS홈과 CJ오쇼핑은 2017년 3월12일까지다.

/김보라기자

홈플러스 프리미엄 사과·배 세트 홈플러스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프리미엄급 설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1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천년 약능이래 750년 곶감세트'와 '프레스티지 1% 사과·배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이랜드 상하이에 제2기 복합물류센터 착공

이랜드그룹이 지난 30일 중국 상하이에 제 2기 복합 물류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완공한 제 1기 물류센터에 이어 2기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상하이 시에 축구장 60개 규모에 해당하는 연면적 44만㎡의 복합 물류센터가 건설된다.

총 2000억원을 투자한 제 2기 복합 물류센터는 4개 동으로 구성된다.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된다. 연간 물동량은 패션의류 기준으로 3억 3000만 장으로 1기 물류센터의 4배 이상 큰 규모다.

1기 물류센터가 중국 내 상품 공급을 수행해왔다면 2기 복합 물류센터는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수요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책임질 예정이다.

또 2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직원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중국 내 3만여 명의 현지 직원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직원들의 교육과 기술 지원 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김수정기자

롯데백화점 "설 선물, 홍삼·정육·과일이 대세"

롯데백화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설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 초반 5일 동안 건강·정육 주류 선물세트의 매출이 늘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판매된 건강 상품군은 전체 매출의 34%를 차지했으며 정육(21%)과 청과(15%)가 그 뒤를 이었다.

건강 상품군에서 홍삼 선물세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5%에 달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관장 홍삼정 선물세트의 인기가 높았으며 특히 '정관장 홍삼정 필러스 기프트세트'는 250여 세트가 판매됐고 '홍삼정 에브리타임'도 드라마 '미생'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가 급증했다.

정육, 청과 상품군은 올해도 중저가 선물세트가 주로 판매됐다.

초반 5일간 20만원대 정육 선물세트는 정육 선물세트 전체 매출의 40%에 달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선물세트는 한우 등심로스, 장조림, 불고기, 국거리용으로 구성된 '특선 2호 세트'로 총 400여 세트가 판매됐다. 청과 선물세트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보다 2종, 3종 혼합 선물세트의 인기가 높았으며 사과, 배, 한라봉 등으로 구성된 '청과 특선 3종 혼합세트'고 800여 세트가 판매됐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구매금액에 따라 5%에 해당하는 롯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6일부터 8일까지는 전 점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휴대용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총 1만 명에게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식품부문장 남기대 상무는 "지난해보다 앞당긴 본 판매 기간 초반 5일간 미리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법인고객이 많이 찾았으며 특히 건강 상품군의 구매가 활발했다"며 "설이 다가오면서 건강 선물세트와 더불어 신선도를 중시하는 정육, 청과, 수산 등 신선식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말레이시아 홈쇼핑 채널 '고샵' 개국

GS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최대 미디어그룹 아스트로와 함께 현지 홈쇼핑 채널 '고샵(GO SHOP)'을 공식 개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GS홈쇼핑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등 7개국에 해외 합작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2월 합작 법인 아스트로 고샵(Astro GO SHOP)은 설립한 이후 방송과 콜센터, IT 등 인프라를 갖췄다. 약 4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방송과 말레이시아 전역을 5일 내에 배송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김수정기자

설 연휴 여행상품 최대 320만원 할인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은 설연휴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중국·동남아, 제주 등 근거리 지역을 비롯해 괌, 호주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으며 유럽여행의 경우 15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0일까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여행 기획전 페이지에서 10여 개의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하면 15만원 할인되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휴기간 이용은 불가하지만 여러 명 동행 여행시 최대 320만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김수정기자

우유 재고 느는데 가격은 '요지부동'… 왜?

시장 원리 벗어난 '원유가격 연동제'로 가격 상승… 값싼 수입산이 국산 분유 대체

국내 원유(原乳·우유의 원료)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우유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 업계들은 "소비자들은 우유값이 비싸다고 지적하는데 정작 '원유가격 연동제'로 가격 조정이 불가능해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국산 우유 재고는 지난해 원말기준으로 전년의 9만2000여t에 비해 150% 늘어난 23만2000여t을 기록했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젖소 집유량이 많아진 데다가 시료 값이 내린 영향이 맞물려 원유(原乳) 생산이 늘었다는 것이 유업계 설명이다.

분유 재고도 지난해 말 기준 1만8484t으로 전년(7323t)보다 152% 증가했다. 분유는 우유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가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재고의 주된 원인은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은 공급에 있다.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총 221만4039t으로 따뜻한 전년(209만3073t)에 비해 12만966t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우유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저출산으로 우유 최대 소비층인 아이들이 줄어든 가운데 대체 음료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우유는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입산 우유 소비는 2013년의 15만7000t에 비해 9만6000t(6.0%) 늘어난 반면 국산 우유 소비는 199만5000t에서 2만9000t(1.5%) 줄어드는 등 수입산 우유의 소비마저 늘며 국산 우유의 재고를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해 수입산 증가분과 국산 감소분을 합치면 12만5000여t으로 재고증가량과 비슷한 수치다.

◆낙농정책 실패… 비싼 국산 원유

이렇게 우유가 넘쳐나는 데도 정작 우유값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원유가격 연동제' 때문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우유 생산비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8월 1일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철저히 생산원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과거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3~5년 마다 원유가격을 협상하면서 생기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당국이 가격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원유가격 협상 시 반복되던 낙농가의 단식농성·납품중단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와 공급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원유가 남아돌아도 원유 가격에 맞춰 우유값은 오히려 오르고, 비싼 가격 탓에 소비가 위축돼 재고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가 실패한 낙농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가 시장의 수요 증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우유값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가격 인하는 어렵다"면서 "대신 대형마트 1+1 행사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유 소비는 줄고 있는데 연동제로 원유가격이 묶여 있다 보니 제품 가격을 낮추면 업계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세계적으로 우유생산이 넘쳐 수입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국산 우유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산 탈지분유(1kg)의 생산원가는 1만2000원 정도인데 비해 수입산은 약 3800원이고 관세를 물고 국내에 들어와도 4000~5000원대에 불과해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우유 소비는 줄었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치즈 등 유제품과 제과 제빵용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국내 우유 총소비량이 전년대비 1.9% 늘어난 364만8000여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커진 시장확대를 수입산 우유가 차지하며 국산 우유의 재고는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 유가공업계들이 우유가격을 올린 것도 국산우유 소비 감소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낙농진흥회가 비교적 저렴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우유(200ml)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2012년은 650원, 2013년은 672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8.1% 오른 727원을 기록했다.

◆재고 해소위해 중국 판로 열려야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고 소진에 '숨통'을 트여줬던 흰 우유의 중국 수출길 마저 막혔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서 130도 이상 초고온살균법을 이용해 만든 우유의 유통기한이 자국 우유보다 긴 것 등을 문제 삼아 국내 우유업체들의 수출 등록을 보류했다.

지난주 중국측 실사단이 방한, 유업체들의 생산공장을 돌아보는 중이라 수출길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돌고 있지만 중국 수출 재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유가공협회 박상도 홍보부장은 "원유가격 연동제와 우유 제품 소비 부진으로 유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흰 우유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 재고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sjw@metroseoul.co.kr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진열된 우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페이스샵, 동물 프린트 마스크 5종

더페이스샵은 '더페이스샵 캐릭터 마스크'(사진) 5종을 출시했다.

양을 비롯해 호랑이와 판다, 용, 여우 등 톡톡 튀는 애니멀 프린트를 마스크시트 자체에 섬세하게 표현했다.

재미있는 디자인 외에도 지난 4년간 누적 판매량 1억 장 이상 돌파한 더페이스샵 마스크시트의 제품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품질 히아루론산과 마린콜라겐의 '수분단락 듀얼 솔루션'을 적용해 지치고 건조한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관리해 준다.

광물유 및 설페이트, 탈크, 불리아크릴아마이드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을 배제한 4우(無)첨가 안심처방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출시를 기념해 2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매장에서 1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캐릭터 마스크 양'을 1매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아웃도어, M&A로 성장동력 찾는다

스포츠시장까지… "기존 브랜드와 시너지가 관건"

아웃도어 업계가 해외 브랜드를 잇따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포츠 레저 브랜드까지 인수하며 기존 스포츠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다.

성장세가 신통치 않은데다 경쟁 브랜드는 매년 늘어나면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약 16% 증가한 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세이지만 매년 평균 20~30% 고속 성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한 풀 꺾인 수치다. 당분간 이보다 못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이에 인수합병(M&A)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 보다 위험 부담이 덜하고 해외 진출에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영원무역은 스위스 자전거 제조 유통업체 스캇(Scott Corporation S.A)의 주가 지분을 취득했다. 기존 20%였던 것을 50.01%로 늘려 과반수를 확보했다.

영원무역은 지난 2011년 스캇스포츠와 합작 투자로 스캇노스아시아를 설립하고 자전거를 비롯해 관련 의류, 용품 등 스캇스포츠의 제품을 수입 판매해왔다.

영원무역 측은 "해외 시장에서 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국내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블랙야크도 미국 브랜드 '나우'를 인수했다. '나우'는 나이키, 파타고니아, 아디다스 등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개발자들이 2007년 만든 브랜드다.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먼저 상품을 판매하고 내년 정식 단독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블랙야크 측은 이번 인수가 북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2는 지난해 유럽 브랜드 '살레와'의 국내 라이선스(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를 인수했다. 내년부터 제품 생산과 유통을 목표로 현재 사업부를 따로 꾸리고 있다. '살레와'는 알펜 이스포에서 산악장비, 트레킹 용품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산업군이나 신성장동력이 필요하고 M&A가 쉽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기존 브랜드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가 브랜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취업, 틈새 시장을 노려라!

중부기술교육원, 실무교육 중심으로 취업 지원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기술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은 고용 시장의 틈새 직종인 '피부관리'와 '주얼리'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1년(1440시간)의 교육과정 중 70% 이상이 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팀 티칭(Team teaching)을 통해 현장 교육을 강화했다.

또 이런 교육의 특성을 살려 피부체형케어과는 피부관리실뿐만 아니라 체형관리지도사나 아로마테라피스트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얼리디자인과도 보석감정 외에 주얼리캐드 등의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원은 오는 21일까지 피부관리와 주얼리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등 21개 학과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와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가 무료이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2)361-5800·www.ibeda.or.kr

/홍재영기자 hmj386@metroseoul.co.kr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의 피부체형케어과 교내 기능 경진대회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제공

롯데칠성음료 '트레비' 큰 폭 성장

작년 약 3300만 개 판매…올해 트레비 슬림캐트 출시

롯데칠성음료는 탄산수 브랜드 트레비(사진)가 지난해 약 3300만 개(500㎖ 페트 환산 기준)가 판매되며 전년대비 56.8% 성장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스피트니스센터·클럽·워터파크 등에서 주 타깃인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음 이벤트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맛(레몬, 라임, 플레인)과 패키지(280㎖ 병, 355㎖ 캔, 500㎖·1.2ℓ 페트 4종) 출시 △유통 채널별 차별화된 마케팅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트렌드 리더로 알려진 배우 고준희를 모델로 깔끔하고 산뜻한 트레비만의 스타일을 강조한 TV 광고를 선보이고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와 협업해 스파클링 아메리카노 '키스 오브 트레비'를 출시한 것도 큰 호응을 얻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탄산수 시장은 생수 시장(약 6000억원) 대비 약 7% 규모로 웰빙 콘셉트의 건강 음료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를 볼 때 앞으로 성장성이 크며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 휴대성과 패션성을 강조한 트레비 300㎖ 슬림캐트를 출시하고 소비자 접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며 국내 탄산수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LIG손해보험은 지난 28일부터 2박3일간 수원에 위치한 LIG인재니움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 50명을 초청해 'LIG희망드림캠프'를 실시했다. 캠프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IG손해보험 제공

LIG손보, 다문화 어린이 위한 'LIG희망드림캠프'

LIG손해보험은 지난 28일부터 2박3일간 수원에 있는 LIG인재니움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린이 50명을 초청해 'LIG희망드림캠프'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8회를 맞은 이 캠프는 회사가 국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캠프 커리큘럼은 '경제활동 미니체험' '금융 보드게임' 등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재미있는 게임과 놀이로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일차에 진행한 시장 탐방에서는 인근 시장을 방문, 미리 작성한 구매 계획에 맞춰 물품을 구매해 그 결과를 비교·평가했다.

이어 한국민속촌을 방문,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현정기자 khj84041@

방송통신대, 4일까지 추가모집

입학시험 없어…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가능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4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인원은 ▲1학년 신입학 22개 학과 학부 3만9448명 ▲2학년 편입학 21개 학과 학부 2만7694명 ▲3학년 편입학 16개 학과 3개 전공 2만997명 등 총 8만8139명이다.

별도의 입학시험이 없어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수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응시 가능하다.

또 방송통신대 홈페이지(www.knou.ac.kr)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윤병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은 "국립대학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1577-2853(인문·사회·자연 교육), 1661-3090(프라임칼리지) /홍재영기자

강강술래, 내일까지 최대 55% 할인

뮤지컬 '로빈훗' 티켓 증정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구매 문의가 몰리고 있다. 불황 여파로 중저가 실속형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으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3일까지 사전 예약판매 기간에 구매하면 최대 55% 할인을 해준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4900원, 중용량세트(500㎖·7팩·14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9만9000원, 양념갈비·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4만64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품목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5만4000원, 한우불고기2호(2.25kg) 7만2000원, 술래양념1호(16대) 9만원에 준비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유준상, 엄기준, 규현 등이 출연하는 화제의 뮤지컬 '로빈훗' 티켓을 선물한다. /김수정기자 kel0815@

특별한 밸런타인데이 원한다면?

르네상스 서울 호텔, 14일 단 하루 스페셜 이브닝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스카이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한 스페셜 메뉴를 오는 14일 단 하루 동안 선보인다.

신선한 샐러드와 연어 카나페, 모둠 치즈 등 7종류의 스낵 메뉴가 제공되고 까베르네 쇼비뇽 등 엄선된 4종류의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이날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세트가 선물로 주어진다.

가격(봉사료·세금 포함)은 1인당 5만원이다. 문의 02)2222-8637 /윤세미기자

한전부지 업무용…현대차 '세금폭탄' 피할 듯

매입 후 1년반 전후 착공시 투자 인정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규모의 현대차그룹 본사와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판매시설을 조성한다. 이 건축물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구상대로 건물이 들어서면 지상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해 '글로벌 빅3'를 향한 삼성동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계획이다. 현대차의 GBC는 현대차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사옥의 기능과 함께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해 한류 체험공간으로 문화복합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곳곳에 흩어져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을 한 곳에 모아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 한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양재동 건물의 수용한계로 인해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 본사가 외부 빌딩을 임대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였다. 또 현대차, 현대제철 등 국내영업본부가 본사와 떨어져 있어 주요 임원의 업무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에 적지 않은 시간이 허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이번 GBC 건설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의 생산, 연구개발(R&D), 디자인 뿐 아니라 자동차라는 단일 제품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자동차전문그룹으로서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5000㎡를 확보해 길 건너 코엑스와 함께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MICE) 산업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전시 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은 설 이전에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재 현대차는 한전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자동차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그러나 호텔건물에 업무용 공간이 포함될 경우 과세 적용이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종류별로 과세가 되지 않고 전체 부지의 일부만 비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비업무용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기업이 토지 매입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을 위해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 매입 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반 전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가 오는 9월 매입이 완료되는 한전 부지를 2017년 1월께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원리했기 때문이다. 매입 후 착공까지 길어도 1년 5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서승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전부지 현대차 구상제안서 모형도
현대차는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에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을 포함한 업무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과 판매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연합뉴스

'제2회 유네스코 키즈 해외캠프' 개최

기아자동차㈜가 유네스코(UNESCO)한국위원회와 함께 차세대 글로벌리더를 꿈꾸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유네스코 키즈 해외캠프'를 실시했다.

'유네스코 키즈 해외캠프'는 기아차가 후원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유네스코 키즈(UNESCO Kid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해외에서의 다양한 견학과 체험 활동,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 키즈 국내캠프를 통해 최종 선발된 25명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이들을 도울 5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참가, 프랑스 파리와 불가리아 브뤼셀을 돌며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UNESC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본부 방문 ▲주불 한국대사관 방문 ▲프랑스 현지 학교 방문·문화교류 활동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 소재 세계 문화유산 답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식견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 방문 일정 중에는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해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불가리아 태생의 보코바 사무총장은 200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오르며 화제가 된 인물이다.

/[illegible]기자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UNESCO KIDS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앞줄 왼쪽),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한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안전 운전 문화 정착에 힘쓸 것"

'퀴즈 이벤트', '인터랙티브 무비 이벤트'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 진행

최근 기초적인 안전 운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현대차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장섰다.

현대자동차 지난달 30일부터 3월 8일까지 5주간 현대차 페이스북(www.facebook.com/abouthyundai)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하는 '안전 운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과속 금지, 스쿨존 준수, 안전띠 착용 등 안전 운전 대한 OX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 볼 수 있는 '퀴즈 이벤트'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안전 정보를 실제로 영상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무비(사용자가 영상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선택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참여형 영상)이벤트(6일~3월8일)' 등 두가지 체험형 이벤트로 구성 됐다.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을 SNS를 통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로 기획해 교통 사고 주요 원인과 교통 법규에 관련한 다양한 안전 운전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현대차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체험 가능하며 현대차는 참여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퀴즈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 중 60여 명에게는 자전거(1명), 주유 상품권(20명), 아이스크림 기프티콘(40명)을 선물한다. '인터랙티브 무비 이벤트' 참가 고객들 중 150여 명에게는 아이패드 미니(1명), 영화 예매권(50명), 커피 기프티콘(100명) 등 다양한 선물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두가지 이벤트에 모두 참가한 고객들 가운데 5명을 추첨해 제주 해비치 호텔 2박 3일 숙박권을 준다. 각 이벤트별 경품 당첨자는 3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2012년부터 여성들이 운전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자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친환경 경제 운전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훈기자 [illegible]

metro entertainment

"첫 20대 역할 호기심 컸죠"

내 심장을 쏴라 여·진·구

여진구(17)는 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서있다. 천진난만한 얼굴이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보다 성숙한 깊이가 있다. 또래보다 굵은 목소리도 여진구의 나이를 모호하게 만든다. 여진구에게 '마성 아역'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것이 어색한 이유다. /장병호기자 solong@metroseoul.co.kr

세상과 벽 쌓은 청년 연기 그냥 부딪혔다
10대 마지막 기념할 학생 열연 해보고 싶어

지난 28일 개봉한 영화 '내 심장을 쏴라'에서 여진구는 10대 시절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6년 내내 정신병원을 전전해온 25세 청년 수명을 연기했다. 10대임에도 20대 역할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배우로서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아직 청춘의 감정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주변 외곱은 어둠이 겹쳐해본 감정인만큼 연기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수명이 왜 이렇게 희망을 잃은 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점이 배우로서는 오히려 궁금했어요. 어려움과 두려움보다 도전하고 싶은 호기심이 더 컸어요."

생에 대한 의지를 잃은 채 방황하던 수명은 정신병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승민(이민기)을 통해 다시금 삶을 살아갈 의지와 열망을 되찾는다.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여진구는 시나리오와 원작 소설을 모두 파고들었다.

"촬영 초반에는 영화 속 수명과 소설 속 수명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해 헤매기도 했어요. 수명에 대한 궁금증을 소설을 통해 많이 해결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연기하는 수명이니까 그냥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부담감을 내려놓았어요."

수명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작 소설을 쓴 정유정 작가의 한 마디였다. "작가님이 '수명이 똑똑하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축적인 그 말을 듣고 수명을 다시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저 소심하고 어두운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수명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찍감치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걸 선택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똑똑한' 것이고요." 그렇게 여진구는 '분투하는 청춘'인 수명에게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동안 여진구는 영화 속에서 일상과 거리가 먼 극단적인 감정들을 연기해왔다.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궁금증이 생기지만 여진구는 "나와 다른 성격의 인물이라 일상생활과 선을 정확하게 그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

'자기적인' '서부전선'까지 나이에 비해 성숙한 연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여진구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보여줄 역할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올해는 10대의 마지막인 만큼 학생 역할을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천진난만한 모습도 보여줬다.

배우로서는 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서있지만 누가 뭐래도 여진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10대 청소년이다. "사람들이 '노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30~40대가 되면 '방부제 미모' '초동안' 같은 말을 들을 것"이라는 농담에서 여진구의 '10대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기 외에도 평소 생각하는 것들은 많아요. 중요한 것부터 영양가 없는 것들까지 다양하죠. 공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하니 대학에 대한 고민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웃음). 그리고 이제 곧 스무 살이잖아요. 10대가 지나가기 전에 꼭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사진/이온드림이엔티(이완기 디자인/이은지)

star bag

나쁜놈은 으로 대륙 진출

배우 손예진이 중국 영화 '나쁜놈은 반드시 죽는다'(가제)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중국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나쁜놈 은'은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화이 브라더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고 뉴 파워 필름이 제작을 맡는 작품이다. 강제규 감독과 펑시오강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다.

중국 설 특집 방송 참여

그룹 빅뱅이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진행된 동방위성TV 동방위송 춘절완회(이하 춘완) 녹화에 한국 아티스트로 유일하게 참여했다. 빅뱅은 이번 녹화에서 '판타스틱 베이비' '레드 보야' '거짓말' 등 히트곡을 선보였다. 19일 방송 예정.

8월 메이비와 비공개 결혼

배우 윤상현이 가수 겸 작사가 메이비와 오는 8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당초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으나 소용히 식을 치르고 싶다는 양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예식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광해군으로 안방 컴백

배우 차승원이 오는 4월 방송되는 MBC 새 월화극 '화정'으로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극중에서 차승원은 조선시대 비운의 왕 광해군 역을 맡았다. 혼돈의 조선시대 정치판을 배경으로 인간의 권력욕과 질투를 다루는 작품이다. 차승원 외에도 김재원, 이연희가 출연한다.

온라인 핫 이슈

휘트니 딸도 욕조서 의식불명 상태 발견

팝스타 고(故) 휘트니 휴스턴의 딸인 바비 크리스티나 휴스턴 브라운(사진)이 욕조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녀 발견됐을 때의 상황이 모친인 휘트니 휴스턴이 3년 전 숨졌을 때와 유사해 미국 연예계에 충격을 안겼다.

미국 주요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휘트니 휴스턴의 딸 브라운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께 남편인 닉 고든과 다른 친구 한 명에 의해 머리를 욕조의 물에 박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911 응급 요원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브라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행했으나 브라운은 곧바로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근교 노스풀턴 병원으로 옮겨졌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은 여전히 살아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호흡하는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장병호기자

조니 뎁, 23세 연하 모델과 다음주 결혼

지난달 29일 영화 '모데카이' 홍보차 일본 도쿄를 찾은 배우 조니 뎁(왼쪽)과 연인 앰버 허드. /AP뉴시스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23세 연하의 배우 겸 모델 앰버 허드와 다음주 주말 결혼식을 올린다고 미국 연예잡지 피플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중미 섬나라 바하마에 있는 조니 뎁 소유의 섬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2011년 영화 '럼 다이어리'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2012년 조니 뎁이 14년 동안 동거해온 바네사 파라디와 결별한 뒤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으며 2014년 초 약혼했다.

조니 뎁은 1998년부터 프랑스 유명 배우 겸 가수인 바네사 파라디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딸 릴리 로즈와 잭을 뒀다. 그러나 2012년 결별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장병호기자

신예 강한나 '순수의 시대'서 섹시미 발산

신예 배우 강한나(사진)가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를 통해 스크린 주연 데뷔 신고식을 치른다.

'순수의 시대'는 조선 개국 7년에 벌어진 '왕자의 난'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담은 사극 영화다. 강한나는 세 남자 사이에서 위태로운 복수를 꿈꾸는 기녀 가희 역을 맡아 신하균, 장혁, 강하늘과 호흡을 맞췄다.

극중 가희는 모든 남자들이 탐하는 미모와 춤 솜씨, 지성을 갖춘 매혹적인 기녀다. 어릴 적 어미를 억울하게 잃은 뒤 복수를 위해 장군 김민재(신하균)에게 접근하지만 그의 순수와 사랑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인물이다.

복수와 매혹, 순수라는 세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줘야 하는 쉽지 않은 캐릭터다. 하지만 강한나는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 전혀 기가 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매력을 아낌없이 뽐냈다.

신하균은 "(강한나는) 어렵고 쉽지 않은 캐릭터를 만나서 훌륭하게 잘 소화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용기와 실력을 가진 여배우"라고 칭찬했다. 안상훈 감독은 "오디션을 볼 때 선머 신인 같지 않았고 연기력과 내공이 상당했다. 도발적인 매력과 순수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가희라는 인물로 '순수의 시대'를 끌고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캐스팅 이유를 설명했다.

'순수의 시대'는 조선 초 서로 다른 욕망을 순수하게 좇는 세 남자의 선 굵은 드라마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는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박성환·규현·양요섭 뮤지컬 무대 … "10대처럼 보이려 노력"

3인 3색 필립 왕세자가 관객을 만난다.

뮤지컬 배우 박성환, 그룹 슈퍼주니어 규현, 그룹 비스트 양요섭은 뮤지컬 '로빈훗'에서 순진한 귀족 청년에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필립 왕세자로 분했다.

지난달 30일 신림동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열린 '로빈훗' 프레스콜에서 박성환은 "내가 제일 형이다. 각자 색깔이 다 다르고 다른 게 맞다"며 "양요섭과 규현은 현역 아이돌이다. 그렇다 보니 처음엔 나도 그런 느낌 가져야 하나'라는 함정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연출가가 거짓 연기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다"며 "조언을 들은 후엔 34세 박성환표 필립을 연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규현은 이날 "현역 아이돌이지만 나이가 어리지 않다"며 "10대처럼 보이도록 노력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왕세자 대접만 받고 사는 아이 철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캐릭터로 연기 중"이라고 자신이 본 필립 왕세자의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양요섭은 "보기와 달리 나는 철없는 녀석이 아니다"며 "그래서 철없는 모습 연기하는 게 어색하다. 두 형과 선배들이 어떻게 철 없이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뮤지컬 '로빈훗'은 수탈을 이기지 못해 도적떼가 된 백성들을 모아 정의를 되찾으려는 로빈훗과 그를 통해 진정한 왕으로 성장하는 필립 왕세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동명의 독일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다. 그러나 이성준 음악 감독과 스태프들은 제작 과정을 통해 원작과 전혀 다른 개성을 표현했다. 3월 29일까지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5@metroseoul.co.kr

세월 속에 무심히 사라져버린 순수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쎄시봉

현실이 힘들고 고달플 때,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추억에 휩싸인다. 세월 속에 무심히 사라져버린 그 시절의 순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뒤늦은 회한에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인생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이다.

'쎄시봉'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울 무교동에 위치했던 음악 감상실이자 '청춘의 성지'로 불린 쎄시봉을 중심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포크 음악 열풍을 배경으로 삼은 영화다. 윤형주, 송창식이 트윈폴리오로 활동하기 전 트리오였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우리도 스무 살이었던 적이 있었다."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이장희(장현성)의 내레이션과 함께 영화는 과거의 시간여행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초반부는 윤형주(강하늘), 송창식(조복래)의 라이벌 경쟁, 그리고 이장희(진구)가 새롭게 찾아낸 오근태(정우)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본격적인 이야기는 민자영(한효주)의 등장부터다. 음악영화로 시작한 영화는 자연스럽게 멜로로 분위기를 바꾼다.

시대와 음악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순수했지만 서툰 첫사랑의 기억이다.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흔들리는 민자영과 그런 민자영에게 "평생 널 위해 노래할게"라며 수줍게 말하는 오근태는 첫사랑을 다룬 멜로영화 속 익숙한 모습이다. 이는 김현석 감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영화는 첫사랑의 기억을 아련하게 담아 관객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한다. 그 시절의 포크 음악은 아련함과 그리움의 증폭제다.

다만 과거의 순수와 회한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 보여주는 후반부는 다소 사족 같다. 40대가 된 오근태와 민자영을 연기하는 김윤석과 김희애의 열연도 후반부의 아쉬움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는 마지막 한 마디가 조금은 낯간지럽게 다가오는 이유다. 15세 이상 관람가. 2월 5일 개봉.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기획 | tvN · 제작 | MI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극본 | 윤난중

최나연 1타차 뒤집기쇼

2년여 만에 LPGA 통산 8번째 우승컵—준우승 리디아 고 역대 최연소 랭킹 1위

최나연(28·SK텔레콤·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츠 골프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최나연은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파72·65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의 성적을 낸 최나연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와 제시카 코르다(미국), 장하나(23·비씨카드)를 1타 차로 제치고 2015시즌 개막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 달러(약 2억4000만원)다.

최나연은 2012년 11월 CME그룹 타이틀홀더스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투어 통산 8승째를 거뒀다. 한편 리디아 고는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게 됐다.

세계 랭킹 2위였던 리디아 고는 2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제치고 1위에 오른다. 17세 9개월 7일. 리디아 고의 나이다. 역대 남녀를 통틀어 최연소 세계 1위의 영예를 누리게 됐다.

종전 최연소 세계 1위는 1997년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운 21세 5개월 16일이다. 여자 최연소 세계 1위는 신지애(27)가 갖고 있던 22세 5일이었다.

최나연과 리디아 고의 우승 경쟁이 4라운드 막판까지 치열했던 경기였다. 최나연이 1타를 앞서 있던 15번 홀(파3)에서 일단 순위가 뒤집혔다.

최나연의 티샷이 홀 2m 정도 거리에 붙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리디아 고의 티샷은 왼쪽으로 쏠리면서 10m가 넘는 거리를 남겼다.

그러다 리디아 고의 먼 거리 퍼트가 그대로 홀을 향한 반면 최나연은 짧은 거리에서 버디 퍼트와 파 퍼트를 모두 놓쳐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17번 홀(파4)에서 한 차례 더 반전이 일어났다. 리디아 고의 티샷은 오른쪽 벙커를 찾았고 최나연의 티샷은 왼쪽 카트 도로 부근으로 날아갔다.

둘 다 위기를 맞았지만 최나연의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앞섰다. 벙커샷이 근처에 있던 나무를 맞고 나무들 사이에 떨어져 네 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리디아 고는 결국 17번 홀에서 2타를 잃으며 선두를 다시 최나연에게 내줬다.

최나연은 경기 후 "기쁘고 벅찬 감정에 엉엉 울게 될 것 같았는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며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해 올해가 많이 기대된다"고 기뻐했다.

이어 "지난 동계 훈련에서 체력을 많이 신경 썼다. 원하는 스윙 자체가 근력을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번 대회 기간에도 1주일 내내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르지 않았다. 오늘도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비는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3위, 세계 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에 각각 올랐다.

/최치선기자 mjsan@metroseoul.co.kr

1일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나연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MMA 전설' 앤더슨 실바 화려한 복귀

정강이 골절 부상 털고 UFC 미들급 디아즈 상대 판정승

살아있는 MMA 전설 앤더슨 실바(40·브라질)가 화려하게 복귀했다.

앤더슨 실바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183 미들급 경기에서 닉 디아즈(32·미국)를 상대로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2006년 UFC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한 실바는 16연승을 기록하는 등 무려 6년 동안 챔피언 벨트를 지키며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언급됐다. '스파이더'라는 별명답게 동체시력과 카운터, 킥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쳐왔다.

하지만 2013년 7월에 열린 와이드먼과의 1차전에서 실바는 충격의 KO패를 당했다. 이어 와이드먼과의 2차전에서 정강이 골절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 나서지 못해 1년이 넘는 공백기를 보냈다.

1일 오후 열린 UFC 183 미들급 경기에서 앤더슨 실바(오른쪽)가 닉 디아즈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TV 캡처

오랫만에 옥타곤에 올라온 실바는 초저녁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디아즈는 얀면 가드를 내리며 실바를 향해 도발했지만 초저녁 타격전은 펼쳐지지 않았다.

실바는 1라운드 막판 펀치 연타 공격으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디아즈는 실바의 왼손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며 왼쪽 눈자위가 찢어졌다.

이후 실바는 3라운드부터 선제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3라운드 중반에는 펀치 연타에 이은 니킥을 시도하며 디아즈를 옥타곤 구석으로 밀어붙였다.

경기 막판 디아즈는 실바의 지속적인 펀치에 왼쪽 눈자위에서 유혈이 낭자했다.

이날 판정승으로 실바는 개인통산 MMA(종합격투기) 34승(6패)을 거뒀다. /김민준기자

손흥민·기성용 아시안컵 빛낸 '베스트 5'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손흥민(레버쿠젠·사진)이 2015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 베스트 5에 선정됐다.

AFP통신은 1일 이번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5명을 꼽으며 기성용에 대해 "새로 선임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주장으로 뽑은 선수"라며 "부상자가 많이 나온 한국이 무실점으로 결승까지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승전 후반 막판에 손흥민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선수로 그의 헤어 스타일이나 가수와의 열애설 등이 화제가 될 정도"라고 소개하며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에서 연장에서만 두 골을 터뜨렸고, 결승에서는 후반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으나 결국 패한 뒤에는 그라운드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적었다.

우승팀 호주 역시 팀 케이힐(뉴욕)과 결승전 선제 득점의 주인공 마시모 루옹고(스윈던타운) 2명이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다. 남은 한 자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오마르 압둘라만(알아인)이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차두리 "난 행복한 축구선수"

아시안컵 유종의 미… 트위터에 태극마크 반납 소감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마지막으로 14년간 정들었던 태극마크를 반납한 '차미네이터' 차두리(35·서울)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에게 대표팀 은퇴의 소감을 전했다.

차두리는 1일 트위터에 "나의 마지막 축구여행은 끝이 났다! 비록 원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헌신히 뛰어준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무한 감사를 보낸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나는 정말 행복한 축구선수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파이팅"이라며 호주 시드니의 대표팀 숙소에서 후배들과 함께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을 첨부했다.

전날 호주와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풀타임 활약한 차두리는 초반 안정된 수비에 치중하며 호주의 빠르고 힘이 센 윙어들을 더 탁월한 체격과 체력으로 제압해냈다.

경기 후반 질풍 같은 공격 오버래핑을 다가며 상대 수비진을 긴장시켰다. 전반 38분 공격수 이정협(상주 상무)의 패스를 받아 번개처럼 페널티지역을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다. 손흥민(레버쿠젠)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차단돼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장전까지 120분 풀타임을 뛴 차두리는 한참 그라운드에 주저 앉아 일어서지 못했다. 연장 후반까지도 사력을 다해 뛰는 모습은 관중의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2001년 11월 세네갈과의 평가전을 통해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차두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경험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한국 축구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의 기쁨을 맛본 베테랑 선수다.

호주와의 아시안컵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A매치 75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차두리는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소속팀 FC 서울에서의 활약에 전념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재벌과 투자정보

강세준의 마켓포인트

코리아 디스크는 일반적으로는 남북 대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을 일컫죠. 이 탓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경우 미국·일본 등 여타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최소한 10% 가량 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외형면에서는 애플에 선계 걸코 뒤지지 않지만 시가총액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논할 때 늘 함께 거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벌 오너 리스크입니다. 재벌 회장들의 지분은 대부분 단자리 수에 불과하지만 기업 내 영향력은 주식회사 시 거의 절대군주 수준입니다. 이것 자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시절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듯이 기업에서도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재벌 오너에 관한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돼 있다는 현업입니다. 투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영업이익 등 재무재표 중심으로 예측했다가는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한전 부지 입찰에서 감정평가액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써낼 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에 동원된 계열사 주가는 골로 갈 수 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넋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지요.

핵심은 결국 언론자유입니다. 2013년말 현재 활동 중인 일간지·주간지·인터넷신문은 총 3609개입니다. 언론의 춘추전국 시대라 할만합니다. 문제는 어찌 대부분이 재벌에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고 그래서 오너에 관해서는 비판은 커녕 동정조차 맘대로 못 다룬다는 점입니다. 삼성·현대차·LG 등을 중심으로 한 전경련과 그 예하 조직인 한국광고주협회라는 곳은 '나쁜 언론 이라는 무기를 만들어 언론을 취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사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미래가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의 인론관이 '지배와 통제 대상'이 아닌 불가근불가원 공존파트너 로 바뀌어야 하지만, 현실은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편집국장

날씨

2/2 月 일출 시각 07 35 일몰 시각 17 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2.co.kr

추운 곳에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 주위에 피가 몰려 치질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평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3				7
	6			1				
		4	7			1		
		2					5	
	9		5		8		3	
	7					6		
		6			2	4		
				9			1	
1				4	3			5

		3		8	1	6		
	1		5	2				7
		9			7			5
								2
2	7						4	6
3								
5			8			9		
4				9	5		8	
		1	7	3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원서 스도쿠 프리미어》(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기사 자격증 합격과 재혼 가능할까요
실력 키우는데 힘쓰고 내년 배우자운

Q 달빛사랑 여자 1969년 10월 13일 유시 사는 신사 시

전에 근무했던 여기씨가 제가 아는 동생 꽃이고 직장 옮긴 곳도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 곳 이어서 놀러 갔다가 이것저것 얘기 하면서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할 수 있으니 저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동생 꽃이 해고통지를 받고 그만 두게 되어서 이곳으로 오기가 좀 그랬지만 나이가 있어서 다른 곳에 취직이 쉽지 않은데 어찌 했습니다. 기사자격증도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연도가 지나면 관리사 시험도 볼 겸해서 옮겼는데 가능할지와 저보다 연하인 남자 친구가 있는데 재혼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지피지기 백전백승은 전쟁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경쟁이므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팔자는 인생의 지도 즉 Road Map이라고 할 수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 및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생활을 해나가면 세파의 어려움을 당한들 심적 고통이 덜 하겠지요. 귀하는 금수쌍청(金水雙淸)으로 피부가 고운 편으로 측량하고 청백함은 높아 살만하나 신경이 예민한 편으로 일로인해 고민을 자초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 장남점이 상존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쥐기 곡간에 있지 않고 경금(庚金)이라고 하는 절벽에 있는 형상으로 유시무종(有始無終)하기 쉽습니다. 추 할 제는 한없이 후하고 자신에게 필요하면 아주 잘하고 이익이 없으면 무정한 기운을 띄기도 하니 이를 상관의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특히 상관도화(傷官桃花)라서 배우자궁이 부실한데 사 공망(巳 空亡)이 겹쳐 상관사궁(傷官死宮)으로 화(火)가 금수(金水)에 빠져 꺼지는 형상이니 내주장에 주변사람이니 배우자를 추방하는 격입니다. 남편을 의미하는 정관(正官)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이 포태법상으로 병 쇠 지(病 衰 死) 행절이 쇠락과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며 공망(空亡 받음 망할 망)이니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면도 있으나 내년2016년을 맞이하면 시원 운과 배우자운이 무난하게 가고 있으므로 아주 부정적은 아닙니다. 결혼생활의 굴곡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격증 획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인수(印綬) 나를 생해주는학문 공부가 원만(伴))을 놓아 문서 운이 좋으므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실력을 키우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2일 음1 월14일 사주스님(www.___.com) 080-391-8400

쥐 6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접러 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유출하는 허무기 됩니다. 84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96년생 정신적, 피로 스트레스를 주의하세요.

소 49년생 높은 분의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61년생 권은 폭기 다녀하면 다른 일을 건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음식마다 술을 주의하세요. 8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아유롭 편안히 가지세요. 62년생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이룰 수 있습니다. 74년생 맛사람을 믿을 를 쳐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6년생 대체로 무난한 평온한 하루입니다.

토끼 51년생 너무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3년생 금전있어 좋은 하루입니다. 75년생 가정과 계획은 다음으로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87년생 자유부터 만나던 사람과 계속 하는게 좋습니다.

용 52년생 소원이 성취되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64년생 노력에 ...은 것에 대한 결실이 와습니다. 76년생 이성관계에 대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88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뱀 53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는 하루입니다. 65년생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77년생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9년생 외출하면 좋은 운이 있습니다.

말 54년생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6년생 어려운 일도 능히 해내낼 수 있습니다. 78년생 마음이 심란하지만 다보다 재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90년생 다칠 수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세요.

양 55년생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7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9년생 장설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이름을 띄다가게 아주 좋은 날입니다.

원숭이 56년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68년생 계획이나 방향을 바꾸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성실하게 추진하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92년생 여유가 있으며 기분전환이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욕심보다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69년생 계획이나 사업을 크게 벌려려 하지 마세요. 81년생 거리가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93년생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하는게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면 어렵게 됩니다. 70년생 고집을 부리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82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94년생 주변의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게 필요합니다.

돼지 59년생 바라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이 있습니다. 71년생 주위의 조언을 들어야 손해를 면합니다. 83년생 건강과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하루입니다. 95년생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세종시에 첨단산단 추진

6월부터 용지판매… 세금 감면·땅값 무이자 할부 혜택

세종시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4-2생활권 개발시업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4-2생활권에 조성될 산학연 클러스터 내 76만㎡의 용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 말 이 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이나 5월 해당 구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 100%와 재산세(5년) 100%가 감면되고 토지 대금 무이자 할부, 입주 기업 대학 연구소 직원 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오는 6월부터 지난해 말 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4개 첨단기업과 최근 입주 의사를 밝힌 1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용지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제윤기자

직업소개비 부당징수 금지

고용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당서 1만원 떼거나 일방적 10% 소개비 불법"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과 상관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비용을 떼는 부당징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관례라는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나 1만원을 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조치로 부당징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뀌게 된다.

/정예원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산후조리원 식품안전 점검

식약처, 식중독 등 예방 위한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을 9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산후조리원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17개 시도 주관으로 진행된다.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 운영 업소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가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은 수거·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원의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개인위생과 식품 안전관리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제윤기자

뜨거웠던 사랑의 온기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현황을 보여주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5도로 마감됐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결과 목표액 3269억원보다 많은 3천여억원이 모금됐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북·경북, 보건환경 가장 취약

전국 시도 중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의 보건 환경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지역의 보건 환경 취약 정도를 점수화한 '우리나라 보건 취약지역 어디일까?'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역의 제정 여건과 보건의료 수요 대비 보건자원으로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역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보건취약지수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는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순으로 높았다. 또 전국 시·군·구 중 지수가 상위 10%에 드는 곳은 23곳이었는데 그중 전남 소속 지역은 신안 진도 완도군 등 8곳이나 됐다.

아울러 서울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산 지역의 보건 상황이 취약했고 서울 중에서는 강북·금천·강서구 등의 보건 상황이 좋지 않았다.

/황재용기자

인사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장 김재신 ▲연구진흥과장 박윤기 ▲시설운영과장 정국봉 ▲전시기획과 홍보마케팅팀장 이동방 ▲운영지원과 정보화팀장 김기백 ▲전시기획과 전시관리운영팀장 정동찬 ▲연구진흥과 과학사물팀장 반승락 ▲교육문화과 과학교육팀장 황익권

■중소기업청

◇국장급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창업벤처국장 김형영 ▲경영판로국장 백운만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김진형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김오원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 김영신 ◇과장급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권영호

■통일부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이계현 ▲남북출입사무소장 김용규

■한국기계연구원

▲연구부원장 박천홍 ▲첨단생산장비연구본부장 송준엽 ▲성과확산본부장 박희창 ▲경영관리본부장 김달식 ▲초정밀시스템연구실장 이창우 ▲기술사업화실장 임세환 ▲대외협력실장 송차운 ▲정책개발실장 나종일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의료지원로봇연구실장 신영재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행정실장 임계현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행정실장 이범기

■한국무역협회

◇승진 ▲국제무역연구원장(상무보) 김극수 ▲운영지원팀장 김호연 ▲뉴욕지부장 김원경 ▲월산지역본부장 심준석 ◇전보 ▲정책협력실장 허문구 ▲e-거래협력센터장 이동복 ▲기획조정실장 안근배 ▲인사팀장 박형용 ▲커머너테스크 실장 이창선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규식 ▲브뤼셀지부장 심상혁 ▲자카르타지부장 남필원

■한국환경공단

◇전보(부서장) ▲기후변화대응처장 차주형 ▲대기환경처장 전병혁 ▲환경분석처장 고평호 ▲제도운영처장 임범무 ▲석면관리처장 김애선 ▲환경에너지처장 이창 ▲수계시설처장 김명래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김은숙 ▲환경시설처장 지학하 ▲강원지사장 강동규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장 정재웅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장원 ▲자원순환처장 이한선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장 류수천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서형식 ▲환경시설처장 박복록 ▲전북지사장 김경희 ▲제주지사장 임홍욱 ▲악취관리센터장 이형규 ◇전보(팀장급) ▲기획조정처 예산팀장 권혁중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장 정동희 ▲배출권관리처 배출권관리운영팀장 정두종 ▲성과운영팀장 윤관부 ▲대기환경처 대기측정검사팀장 정의준 ▲총량관리지원팀장 오세민 ▲토양지하수처 환경조사정책팀장 홍경기 ▲환경분석처 정도관리팀장 유재현 ▲자원순환지원처 환경유해검사팀장 고인호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장 이호철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운영팀장 전준희 ▲폐자원에너지센터 폐자원시설검사팀장 윤영선 ▲수도권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처 대기관리팀장 오홍수 ▲환경시설처 수계관리팀장 이인선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2팀장 탁명석 ▲대구경북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팀장 황정현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 윤기호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시설처 환경진단팀장 장대환 ▲호남권유수율사업소장 김동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비상안전담당관 서기관 박광현

부고

▲박육근씨 별세, 서대석(전 행자부 비서관)씨 장모상 = 1월 31일 오후,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9시 010-8000-1138

▲유지선씨 별세, 유수현 협성대 교수·선미(아테나 상무이사)씨 부친상, 홍관표(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씨 장인상 = 1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

홈플러스, 고객정보 팔아 수백억 챙겼다

경품행사 등 통해 수집한 2400건 보험사에 넘겨·· 전·현직 임직원 기소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미끼성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실시한 행사는 명목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 입춘을 사흘 앞둔 1일 서울 강동구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린 입춘맞이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입춘대길'이라고 적은 입춘첩을 들고 봄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재판 시행 6년 만에 첫 감소

"피고인, 선뜻 신청 부담"

2008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시행 첫 해인 2008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등 해마다 증가하던 참여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달 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선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이는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법원 파기율은 채 1%가 안된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가 축적되면서 참여재판의 양형이 통상 절차에 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법원이 최근 배심원 29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39%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답했다 /조현정기자

제주해군기지 농성천막 강제 철거

해군·경찰 등 1000명 투입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해군측 용역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주민 활동가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해군 측 용역과 경찰 병력 등 총 1000여 명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과 24인승 소형버스 등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농성천막에서 공사 저지투쟁을 벌인 지 99일만에 이뤄진 일로 군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00여 명은 경찰·해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천막 주위에 나무 벽을 쌓아 올리고 8m 높이의 망루를 만드는 등 철거를 막기 위한 준비를 했으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0명은 망루 꼭대기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묶기도 했다

이에 해군측 용역이 농성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고 나무벽과 철조망을 걷어내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몸싸움과 말다툼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부상자가 나오면서 철거는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며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설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강 주교는 경찰에 이날 연행된 15명을 석방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자 강 주교는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 대치 상황을 마무리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일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도청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그동안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황재윤기자

경찰 민원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에

경찰청, '민원포털' 운영

경찰청이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찰 민원포털'을 본격 운영한다

민원포털은 사이버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과 의무경찰지원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서비스의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용 가능한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은 총 32종이며 운전경력증명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은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 관련 정보와 범칙금·과태료 정보 등 국민 수요가 많은 경찰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한다

단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총포·화약 민원 9종 등의 민원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2017년까지 민원포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47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